

임정엽·우범기 정책연대... 조지훈 "해당행위"

유창희 "전주시민 상대로 한 정치 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장 경선 후보들 일제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정책 연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장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우범기 전주시장 경선후보와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2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으로 연 정책연대 공식 선언식에서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만약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 연대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는 생물이야. 모든 게 열려 있다"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우범기 후보의 이 발언은 "민주 예비후보로서는 할 수 없는 말로 해당행위를 예고하는 발언"이라며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당 당원들에게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부적격 처리된 (임정엽 전 완주군수)후보와 정책연대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으로 민주당 후보로 나갈 자격이 없으며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도



우범기·임정엽 전주시장 후보는 25일 시청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대도약 정책연대 선언식을 통해 30년 가까이 침체에 빠진 전주의 대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정책 연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연대가 "전주시민을 상대로 한 정치 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임 전 군수는 상대적으로 열세한 민주당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

후보를 불모로 정책연대 운운하며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다"며 "말선수재 죄로 컷오프된 후 무소속 출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 급기야 우범기 후보와 정책연대를 하겠다는 희한한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군수는 지금까지 전주 시장 불출마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우선 우범기 후보가 야합한 뒤 나중에 토사구팽시키겠다는 전략이 읽힌다. 우범기 후보가 경선에 실패하면 은근슬쩍 이런저런 표를 긁어모아 무소속으로 전주시장에 출마하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65만 전주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우범기 후보를 돕고 싶거든 차라리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범기 후보 지지선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범기 예비후보는 조지훈 예비후보의 "해당행위 예고"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임정엽 후보와의 정책연대 기자회견은 "전주대변혁, 대도약을 위해 정책을 연대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주시민을 위해서라면 어떤 공약이라도 수용할 자세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암소 혈값 매각 사건 재수사하라"

순정축협 일부 조합원·군민, 최기환 순창군수 예비후보 수사 촉구

순정축협등조합 일부 조합원들과 순창군민들은 25일 오후 전북도지방법청에서 '전 순정축협 최기환 조합장 암소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과 군민들은 이날 "최기환 전 조합장이 최소 192마리의 임신한 암소를 감정평가와 감사의 인회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적·자의적으로 매각해 순정축협에 수억 원대의 손실을 끼치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최기환 전 조합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 전조합장이 지난 2019년 초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한우개량 사업과정에서 임신한 암소를 정당한 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량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자신의 부인에게 매도해 보조금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심과 반발을 샀음에도 수사기관이 내사종결 처리해 오려려 문제를 덮은 듯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조합장이었던 최씨를 상대로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상대로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조합을 이끌어가는 이사들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는 것. 결국, 피해자들은 순정축협 조합원이었다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당시에 수사기관은 임신한 암소 싼값에 판매한 것은 맞지만, 피해를 본 사람이 없어 내사종결 처리했다. 조합원들의 손실에 대한 파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그 당시에 이 같은 내용을 언

론과 수사기관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와 같은 최 전조합장의 만행이 축협에 그치지 않고, 공당의 공천을 받아 한 고을의 수장으로 취임하게 되다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5천여 억 원에 이르는 예산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될까라는 걱정이 앞선다"며 우려를 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 A씨는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기환 씨가 순창군수직에 출마하려면 순정축협에 끼친 손실을 당장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순정 축협의 배임과 횡령 혐의, 당시 소의 구매와 판매에 따른 관련 서류의 폐기지시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위반과 컴퓨터 파일 삭제 지시 등 새로운 우범기 증거들이 나타났다"면서 "수사기관은 이러한 점을 참고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순정축협이 순창읍에 건립할 예정인 한우명품관 부지를 두고 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순정축협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은 지난 2017년 전임 최기환 전 조합장이 재직하던 무렵인데, 그 바로 옆에 가족이 운영하는 대형카페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최기환 전 순정조합장은 더불어민주당 순창군수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재수사 여부에 따라 지역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기자

'놀이로 성장하는 신나는 도시 야호! 전주'

전주시, 5월 5-7일까지 노송광장서 어린이날 기념 놀이주간 운영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놀이터도시 전주에서 어린이와 시민들을 위한 행복한 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줄어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놀이 공간과 다양한 경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놀이주간은 아동과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테마별 놀이

터 운영 △어린이날 기념식 △놀이 인식개선 교육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노송광장에 마련되는 테마별 놀이 프로그램으로는 △목재와 퍼펙트를 활용한 공간감을 경험하고 즐기는 '다빈치건축놀이터' △패트병, 옷감, 박스 등 재활용품을 이용한 '생태미술놀이터' △대형 그림보드에 작가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완성하는 '참예설치놀이터' △특별점 시간대 모두가 참여해 대형 전으로 만드는 플래시몹 '보자기놀이터' △분수수가 운영되는 시간대를 활용한 범용 놀이 '분수대에 모여라' △줄

다리기, 줄넘기 등 다양한 '테마 놀이'가 연이어 펼쳐진다.

시는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건강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모범 어린이와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어린이날 기념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시청강당에서 제충만 아동권리 옹호 활동가를 초청해 '놀이로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주제로 한 놀이 인식개선 교육을 한다.

이번 놀이주간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활동 전 손 소독과 마스크

크 상시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황관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누구나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주간'을 운영하고자 한다"면서 "아동과 전주시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2022년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주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53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연계 '전주문화 체험형 도서관 여행 특별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 출신 최진영 영화 감독 초청 강연 펼쳐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여행객이 도서관 여행을 통해 전주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체험형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25일 인후도서관에서 전주국제영화제와 연계한 '전주문화 체험형 도서관 여행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영화 '태어나길 잘했어'를 연출한 최진영 감독이 초청돼 '지역에서 영화 제작하기에 관하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전주 출신 최진영 감독은 영화 '태어나길 잘했어'가 2020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된 이후 서울독립영화제와 광주여성영화제, 오사카아시아필름페스티벌, 전주국제영화제 등에서 선보이며 호평을 받고 있는 감독이다. 최 감독은 이날 △지역 창작자로서 영화 만들기 △영화 '태어나길 잘했

어'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 '로컬 영화'의 힘 옛보기에 대해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는 전주국제영화제와 연계한 도서관 여행에 이어 △5월 전주한지문화축제 연계한 '전주 도서관 여행하며 한지 휴식등 만들기' △9월 전주독서대전 기간 도서관여행 특별 프로그램 등 전주 문화 체험형 도서관 여행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시민은 "도서관 여행도 하며 강연을 들으니 전주의 문화를 즐길 수 있어 좋았다"면서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는 주제가 있는 도서관여행도 꼭 참여해볼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지친 삶 속에서 여행하듯 도서관을 방문해 휴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전주시는 25일 인후도서관에서 전주국제영화제와 연계한 '전주문화 체험형 도서관 여행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꽃심 전주' 사진 공모전 출품작 모집

5월 2~20일까지 진행

전주정신인 '꽃심'을 널리 알리고 전주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하기 위한 사진공모전이 열린다.

전주시는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전주정신 '꽃심'의 인지도 및 호감도 제고를 위해 '꽃심 전주' 사진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전주 역사문화에 깃든 전주정신(대동, 풍류, 울골음, 창신)'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전주정신을 찾아내 전주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꽃심 전주'는 지난 2015년 시민들과

함께 정립한 전주정신으로, △대동(함께) △풍류(품격있게) △울골음(바르게) △창신(새롭게) 등 전주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4가지 정신을 말한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4점까지 출품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는 총 35개 작품을 선정해 대상 1

명(상금 100만원) 등 5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다음 달 27일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향후 전주정신 활성화를 위한 교육 자료와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된다.

권인숙 전주시 인문생명교육과장은 "이번 사진 공모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전주정신 꽃심이 모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5월 말까지 총 43억원 징수 목표

전주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운영되는 '2022년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지방세 22억 원과 세외수입 21억 원 등 총 43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강제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체납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도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든 세입부서에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해서 고액체납

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은행의 신용정보제공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 500만 원,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차량 및 부동산 공매처리를 적극 추진하고, 체납자 명의 재산 없이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실시할 계획이다. 강제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체납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도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시민 행복 찾는 마음치유 프로그램 가동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전주시가 불안과 우울증, 스트레스, 코로나19 블루 등 다양한 마음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전주시민들의 마음을 돌본다.

전주시 마음치유센터는 25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4주간 △음악 프로그램 △미술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 △원예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1기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4회기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음치유센터는 이날 첫 일정으로 산후 및 육아 스트레스를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악치유 프로그램인 '내 마음의 소리가 궁금해'를 운영했다. 음악치유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90분가량 산후 및 육아 스트레스를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대상자들은 음악치료사와 함께 여러 악기를 함께 연주하고, 음악을 듣고 떠올린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또, 자신에게 의미 있는 노래를 선정해 느



끼는 감정을 다른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등 자신의 내면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해 건강한 내면의 힘을 갖도록 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시는 음악치유 프로그램에 이어 매주 화요일에 우울·불안·스트레스 만성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명상치유 프로그램인 '내 마음을 깨워줘'를, 수요일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미술치유 프로그램인 '진짜 나를 보여줘'를, 목요일에는 우울·불안·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행복을 찾고 싶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원예치유 프로그램인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를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